

한국 아동의 행복감척도 개발 연구

최 혜 영(창원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조교수) · 신 혜 영(한양사이버대학교 아동학과 전임강사)

최 미 숙(전남대학교 유아교육과 부교수) · 조 성 연(호서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현대사회의 아동들은 이른 시기부터 경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 가운데 아동들이 자신의 생활에 대하여 얼마나 행복해하고 만족스러워 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미래의 건강한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중요한 일이다. 최근 연구들에서 성인들과 청소년들에 대한 행복감이나 만족도에 대한 연구가 부분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초등학교 아동의 행복감에 대한 연구결과는 아직 찾아보기 어려우며, 더욱이 이를 평가할 도구가 개발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의 초등학교 아동들이 자신의 생활에 대해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여 그 타당도와 신뢰도를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의 대상은 서울, 경기, 강원, 충청, 경상, 전라도 6개 권역에 위치한 공립초등학교 1-6학년생이었다. 표집 방법으로는 전국 권역에서 각 2개의 초등학교를 유의표집 하였고, 선정된 초등학교에서는 학년별로 2개 학급을 무선으로 표집하였다. 단 강원도의 경우는 한 학급의 학생 수가 많지 않아 추가로 2개 학교를 더 선정하였다. 결국 최종 선정된 대상은 총 14개 학교의 146개 학급에 재학하고 있는 총 4,320명이었다. 수집한 자료 중에서 자료가 불충분한 경우를 제외한 총 3,608명의 질문지가 자료 분석에 사용되었다. 행복감 척도를 구성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들(이정화, 2005; Diener, Emmons, Larsen, & Griffin, 1985)을 토대로 자신에 대한 것, 대인관계(부모, 형제, 교사, 또래), 학교생활, 방과후 활동(과외활동, 여가활동), 전반적 생활 영역의 약 74개의 문항을 제작하였다. 이후 아동학과 유아교육의 전문가 5인에 의한 내용타당도 검증을 거쳐 긍정적 자아개념, 과외활동, 부모와의 관계, 여가활동, 형제·자매관계, 학교 및 지역사회생활영역의 6개 영역 32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를 재제작하였다. 본 척도의 점수범위는 32~128점이며, 응답방법은 ‘매우 그렇다(4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의 4점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행복감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자료 분석방법으로 문항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요인분석 및 하위 영역 간 상호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또한 신뢰도는 내적합치도인 Cronbach's α 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행복감척도의 구인타당도를 산출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6개 요인이 행복감 전체 변량의 48.21%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요인부하량도 .41~.84로 양호하였다. 행복감을 설명하는 첫 번째 요인은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감을 나타내는 문항들(9문항)로 전체 변량의 25%를 설명하였고, “긍정적 자아개념”이라고 명명하였다. 두 번째 요인은 학원수업 등과 관련된 문항들(5문항)로 전체 변량의 6.1%를 설명하였으며, “과외활동”이라고 명명하였다. 세 번째 요인은 부모와 관련된 문항들(6문항)로 전체 변량의 5.0%를 설명하였고 “부모와의 관계”라고 명명하였다. 네 번째 요인은 일상과 관련된 문항들(5문항)로 총 변량의 4.65%를 설명해주었으며 “여가활동”이라고 명명하였다. 행복감 척도를 설명하는 다섯 번째 요인은 2문항으로 “형제·자매관계(2문항)”로 전체 변량의 3.86%를, 여섯 번째 요인(5문항)은 전체 변량의 3.46%를 설명하는 것으로 “학교 및 지역사회생활”이라고 명명하였다. 둘째, 척도의 신뢰도를 구하기 위해 하위 영역별 내적합치도 계수인 Cronbach's α 를 산출한 결과 하위요인별로 .61~.80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32개 문항에 대해서는 .89였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아동의 행복감 척도는 6개의 요인구조가 밝혀졌으며 신뢰도 면에서도 하위영역별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할 때 한국 아동의 행복감척도는 초등학교 아동의 행복감을 측정하는데 타당하고 신뢰로운 도구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